

2026.09.06 글로벌 시황 야간 브리핑

매크로 역풍 속의 자산 이동

지정학적 리스크와 5% 국채금리
5% 국채금리 위협이 촉발한
글로벌 자본의 연쇄 이동 경로 추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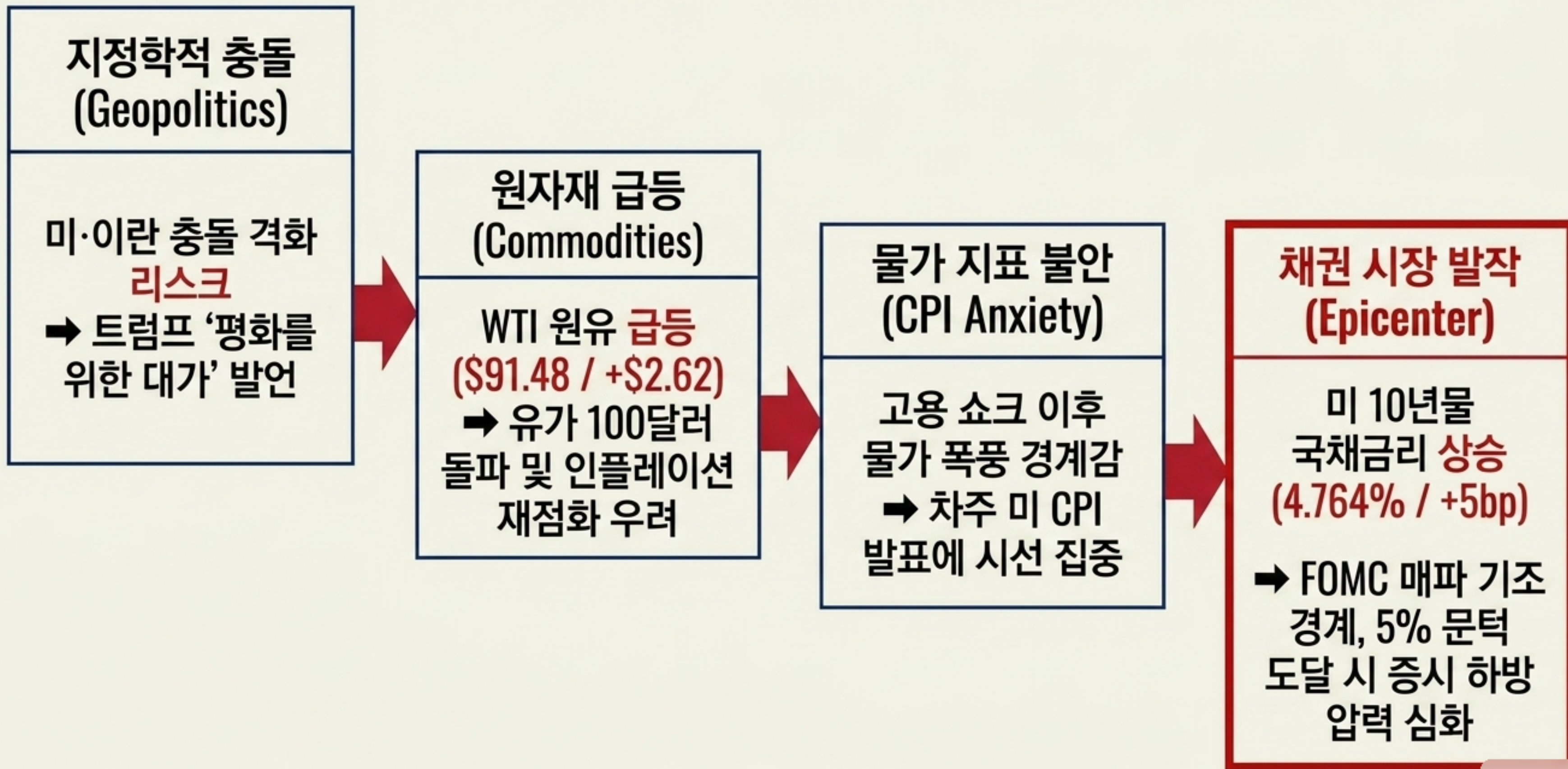


요약: 관망세 속의 방어적 자본 재배치

매크로 압력 (Macro Pressures)	시장 촉매제 (Market Catalysts)
■ 미·이란 지정학 리스크 확대로 WTI 유가 \$91 돌파 (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) ■ 미 10년물 국채금리 5% 돌파 임박 ■ 미 10년물 국채금리 5% 돌파 임박 (4.764%, +5bp)	■ 국내 증시 기관 순매수 (249만주) 유입으로 하방 지지 ■ GPT6 기대감에 따른 반도체 수요 모멘텀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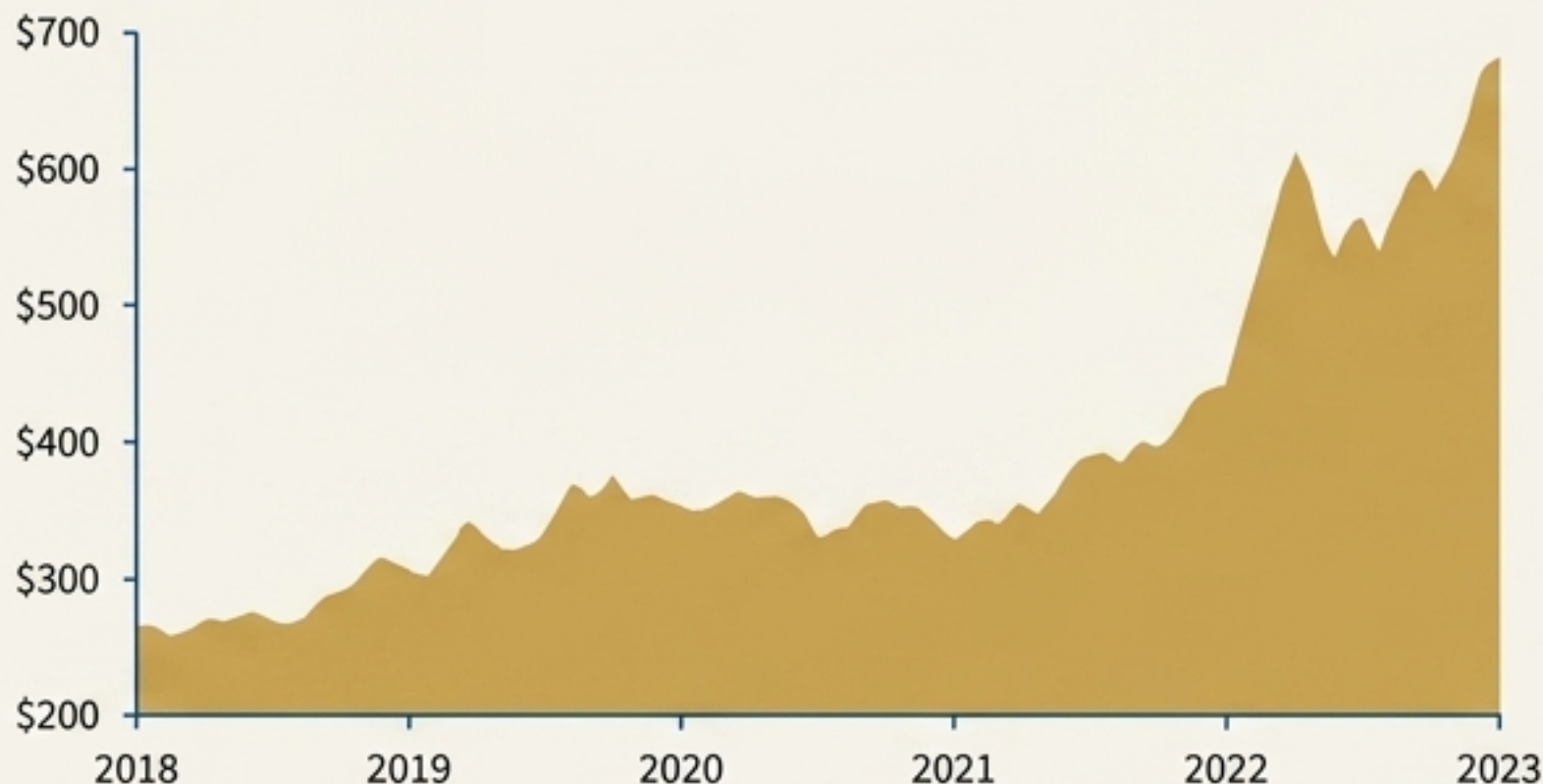
시장은 붕괴하지 않으나, 자본은 '개별 종목'에서 **'지수형/안전자산'**으로, '고평가 AI'에서 **'대체 시장(중국)'**으로 뚜렷하게 이동 중. FOMC 및 CPI 발표 전까지 방어적 관망이 요구되는 구간.

매크로 도미노: 지정학 리스크가 쏘아올린 인플레이션 공포



지정학적 긴장 속 대체자산 및 안전자산 랠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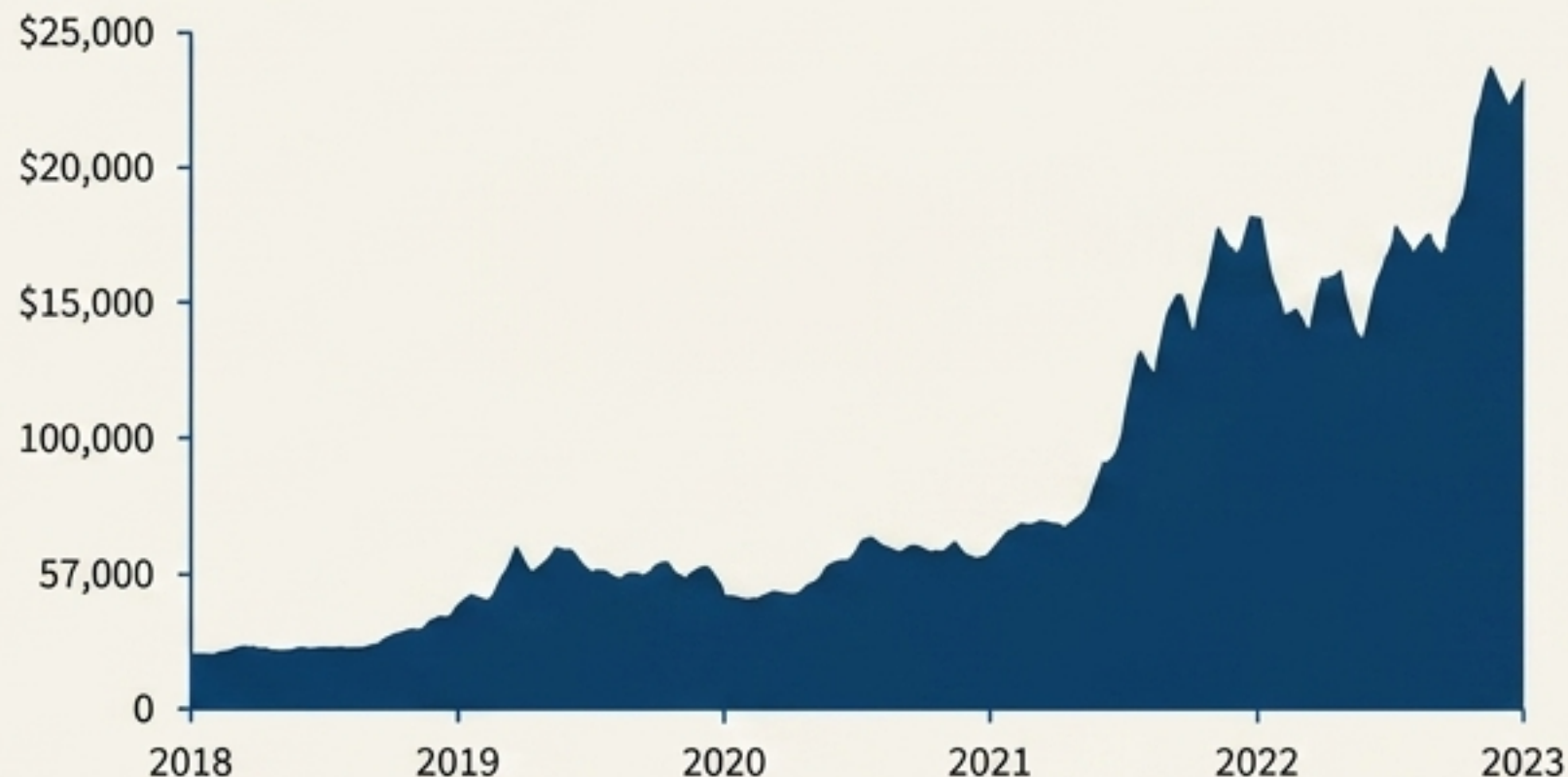
금 (Gold)



현재가: \$500 (+\$18)

동인: 매크로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전통적 안전자산 선호 심리 폭발.

비트코인 (Bitcoin)



현재가: \$67,350 (+\$1,240)

동인: ETF 순유입 지속. 나스닥보다 금과 높은 상관관계수(6년래 최고)를 보이며 '디지털 안전자산'으로 기능 중.

미국 증시: AI 모멘텀과 차익실현의 줄다리기

S&P 500 7,747.71 (보합 0.00%) | NASDAQ 26,506.99 (-0.29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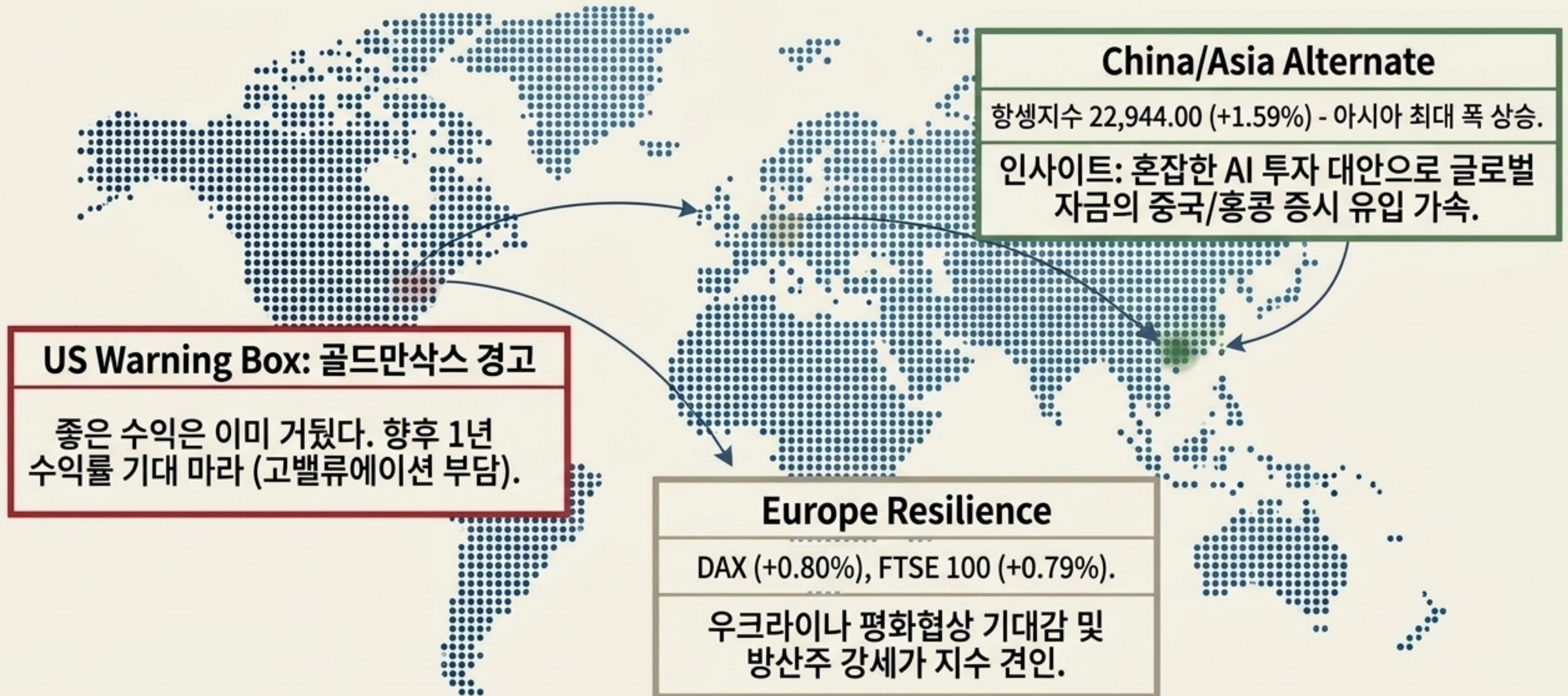
GPT6 출시 효과로 반도체주 매수세가 유입되었으나, 국채 금리 급등 부담으로 기술주 중심의 차익실현 매물이 지수 상승을 제한.

서학개미의 자본 이동



환율 하락 및 변동성 회피 심리로 국내 증시 이탈 가속 (해외 펀드 순유입 19배).
“개별주는 못 믿겠다”는 안전 선호 경향 뚜렷.

글로벌 자금 흐름: 혼잡한 AI 트레이드 탈출과 대안 찾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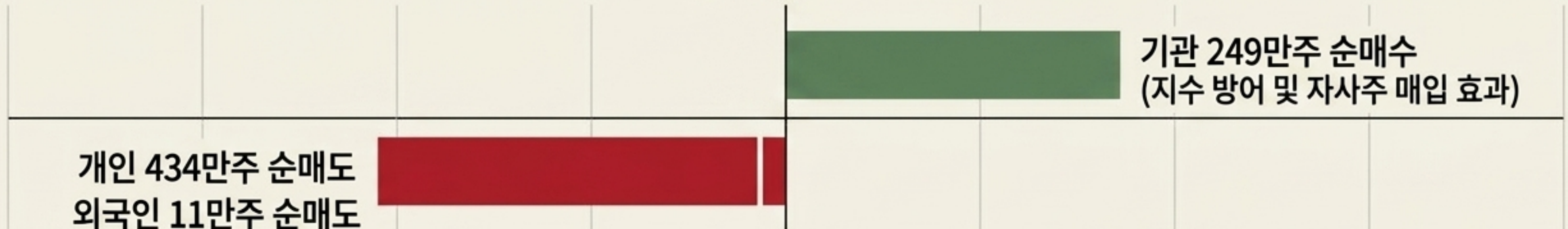


국내 증시 표면과 이면: 기관이 주도한 반등, 취약한 수급

KOSPI 6,687.21 (+1.64%)

KOSDAQ 813.50 (+2.95%)

수급 동향 (Flow Data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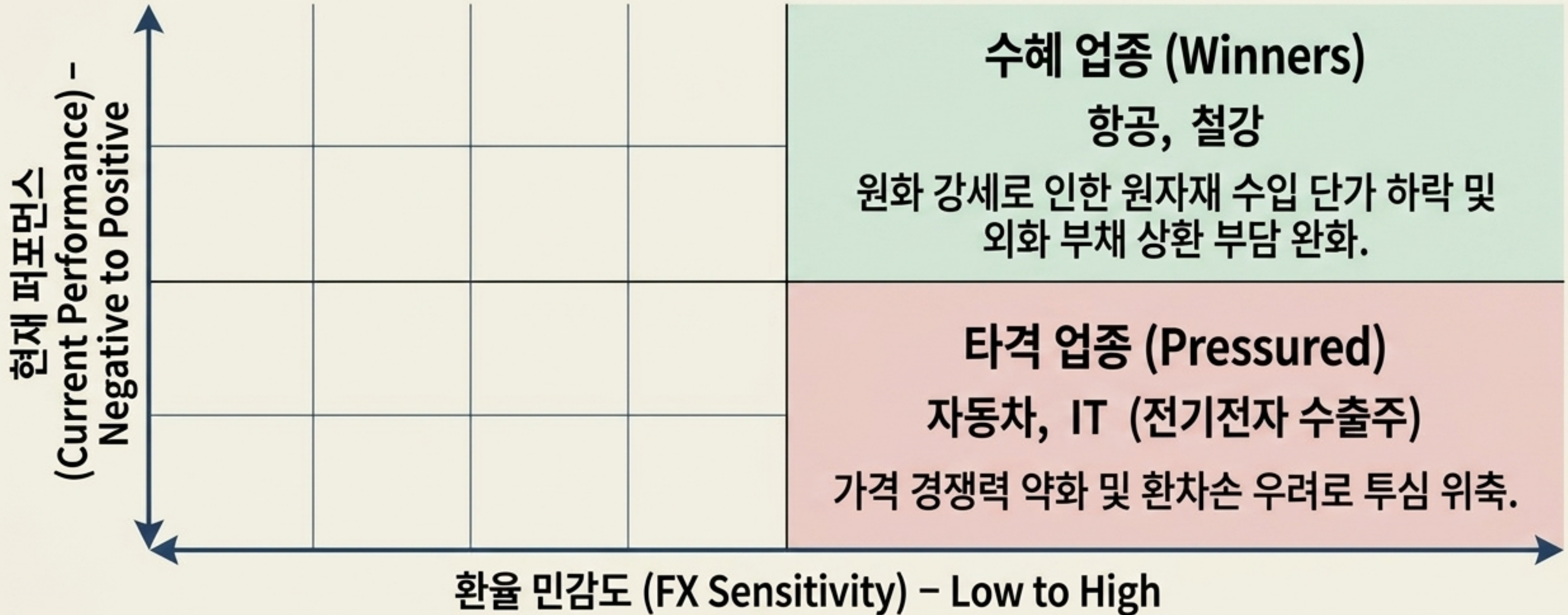
KOSDAQ Paradox

지수는 15%에 달하는 반등을 보였으나, 실제 거래 대금은 위축되어 있으며 수급이 취약해 추가 상승 모멘텀은 제한적.

Key Question

코스피 7000선 회복 시험대
→ 결국 '미국 금리 향방'에 종속.

원/달러 환율 하락(-5.30원 → 1,345.21원)에 따른 섹터별 민감도 매트릭스
달러 인덱스 약세(0.5, -0.32)와 유로 강세로 인한 원화 강세 국면.



시가총액 상위 10종목 히트맵: 반도체 쏠림 현상



동인: 미국 증시 'GPT6 효과'가 국내 반도체로 전이되며 지수 상승 견인.

동인: 반도체로의 자금 쏠림과 배터리/바이오 섹터 차익 실현 출회.

단기 카탈리스트: 코스피 7000선 돌파의 문지기



Insight: 위 세 가지 매크로 이벤트가 소화되기 전까지 지수는 박스권 내 변동성 장세를 보일 확률이 높음.
정부 주관 '시장상황점검회의' 개최도 이 같은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조치.

전략 플레이북 (Strategic Playbook)



방어적 관망 (Defensive Stance)

미 10년물 국채 5% 도달 여부
및 FOMC/CPI 결과 확인
전까지 공격적 베팅 자제.
기관 자사주 매입에 의존하는
하방 경직성은
매크로 충격에 취약함.



지수 및 안전자산 편입 (Index & Safe Havens)

개별주 변동성 리스크 회피.
ETF(지수형), 배당주, 그리고
지정학적 헷징을 위한
금(Gold) 비중 확대 전략 유효.



환율 민감도 기반 트레이딩 (FX Sensitivity Play)

원화 강세 국면(1,345원대)
지속 시 내수/수입(항공, 철강)
비중을 늘리고, 수출 대형주
(자동차, IT) 비중 조절 필요.
AI 수혜주(반도체)는 환율
악재를 상쇄할 모멘텀 보유.